

**암**은 인류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암 진단은 곧 사형선고라고 생각될 만큼 환자 본인은 물론 주위의 가족들에게도 심한 공포와 좌절을 준다. 그 이유는 사망률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질병에 비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통증이 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통계청에서 매년 분석, 발표하는 사망 원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암이 22% 정도로서 사망 원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는 매년 약 5만 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발생 부위별로는 위, 간, 폐, 자궁, 대장, 유방, 조혈계, 담낭, 갑상선, 식도 순으로 발병률이 높다. 암은 특히 40대 이후에 많이 발병하지만 발병 연령층이 갈수록 낮아져 소아 암이나 20, 30대 암 환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종양은 아직도 그 발생 원인과 기전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고 또 그 생물학적 성질이 복잡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종양은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이며 인체에 대해서 무의미하거나 이롭지 않을뿐더러 정상 조직에 대하여 파괴적인 것을 말한다.

어떤 원인으로 인하여 정상 세포의 불필요한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조절 기능이 고장나면서 이 세포들은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인 분열을 하게 되고 이들이 세포 집단을 형성하여 주위의 조직 및 장기를 침범하고, 또 원발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조직이나 장기까지도 이 세포들이 퍼지는 전이를 일으키게 되어 결국 우리 몸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종양을 악성종양이라 하며, 일반적으로 암이라고 한다.

동양에서의 종양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은허(殷墟)에서 발견된 갑골문

## 한방으로 보는 성인병



## 암의 한방 치료



## 이진화 부평한방병원장

에 '유(癰)'라는 병명이 나타났으며 기원전 12세기의 주례에는 종양만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양의(瘍醫)'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한방으로 종양을 치료해 온 역사는 매우 오래 전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저술로는 16세기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 종양을 의미하는 각종 병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식도암을 의미하는 열격(噎膈), 위암을 의미하는 반위(反胃), 복부 악성, 양성 종양을 의미하는 적취(積聚), 유방암을 의미하는 유암(乳癥)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한의학은 환자가 느끼는 자각 증상이나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질병을 파악하기 때문에 종양에 대한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암의 경우에 환자가 자각 증상을 느낄 때면 그 상태가 이미 말기에 이르러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빠져든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의 조기 진단에 약점을 갖고 있는 한의학은 암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양 의학의 발달로 암의 진단법이 발전하고, 환경, 음식물 등의 영향으로 암의 발생은 날로 증가되는데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현실은 한의학이 나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암의 근본적인 발병 원인은 유전자 손상에서 비롯된다. 유전자란 자기가 가지고있는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에 그대로 복사해 내려 주는 물질이다. 그런데 어떠한 병변으로 인해 이 유전자가 손상을 입으면 유전자가 변하거나 유전자의 형태가 변한다. 이처럼 유전자에 상처를 주는 물질을 발암 인자라고 한다.

암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발암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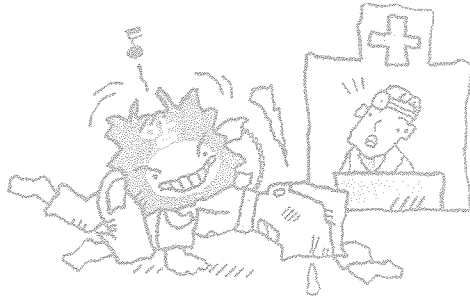
은 담배 연기 중의 벤조피렌, 과도한 육식을 할때 자동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되는 담즙산, 땅콩에서 생긴 곰팡이에 의한 아플라톡신, 젓갈류, 햄, 소시지, 베이컨 등의 음식을 섭취 시 위장에서 아민과 아질산이 결합해서 생성된 나이트로조아민, 불에 탄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카르보인 유도체, 각종 화학물질, 바이러스, 호르몬 등으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세계보건기구의 보고서는 가장 중요한 암 유발 원인으로 음식물(35%)과 흡연(30%)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자가 손상되었다 해서 정상 세포가 모두 암세포로 돌변하는 것은 아니다. 정상 세포가 어떠한 이유로든 유전자 고장을 일으키는 일은 매일 700~800개의 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인체는 그 때마다 자가 수리 능력으로 손상된 유전자를 스스로 고쳐서 복원시키기 때문에 모두 암이 되지는 않는다.

수많은 발암 인자에 노출되어 있는 인체가 모두 암에 걸리지 않는 이유는 인체 내의 자동 수리 기구, 즉 면역 기능에 의해 수리 복원되기 때문이다. 즉 암의 발생은 발암물질이라는 외적 자극과 면역 기능이라는 내적 환경의 균형이 깨어졌을 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암이 왜 발생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양방에서는 발암 물질을 중요시하는데 반하여 한방에서는 면역 기능의 저하를 주요한 발암 원인으로 본다. 즉, 암세포의 발생은 인체 내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저지하는 신체 내부의 방어 기구가 약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감이 유행할 때 똑같이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어도 어떤 이는 독감에 걸리고 어떤 이는 걸리지 않는 것은 저항



력 즉, 면역 기능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암의 발생 역시 이와 동일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발병 인자만으로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없고 그 이전에 인체 정기가 이미 허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기가 침입하여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권위있는 한의학 서적인 황제내경(黃帝內經)에서 "사기가 침입할 수 있는 것은 정기가 쇠약하기 때문이다(邪之所湊 其氣必虛 사지소주 기기필허)", "정기가 내부에 충만하면 사기가 침입하지 못한다(正氣存內 邪不可干 정기존내 사불가간)"라고 기술한 것은 암의 발병에 대한 한의학적 관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서양 의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한 암 치료 방법은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 등이다. 암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이러한 요법 가운데 하나 이상 혹은 모두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암세포를 수술로 제거한 뒤 화학 치료와 방사선 치료로 남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수술 요법은 암에 대하여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이며, 현재에도 대부분의 고형암치료 시 근간이 되고 있다. 증식하기 전에 암 발생 부위를 몸에서 떼어

버리는 것으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아야 수술로써 완전한 절제가 가능하며 동시에 환자의 일반 건강 상태가 수술을 견디어 낼 만큼 충분해야만한다.

암 수술의 성공 여부는 수술 후 5년 동안 생존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며, 조기에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하지만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하지 않으면 재발율이 높아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항암제의 화학요법은 전신 요법으로서, 암세포의 각종 대사 경로에 개입하여 DNA의 복제, 전사나 번역 과정을 차단하는 항암 활성을 나타내는 약제로써 치료하는 방법이다. 급성 임파성 백혈병, 고환종양, 소세포 폐암, 유방암의 경우 치유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도 공격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머리카락·골수 세포·구강 및 위장 점막 세포 등 증식이 활발한 정상 세포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

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암세포의 저항력이 강화되어 약제에 대한 내성이 생김에 따라 점점 더 강도 높은 항암제를 투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3~4종이 항암제를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방사선 요법은 X선과 같은 방사선이 인체 조직 내에 들어가면 조직에 있는 원자구조가 전이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암 조직이 방사선 치료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야 되고, 동시에 그 주위 정상 조직의 내성이 높아야한다.

따라서 그 주요 대상은 후두암을 비롯한 두경부암, 초기의 유암, 자궁경부

암, 고환 및 난소의 정상피종 등이다. 그러나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으며, 3기를 넘어서는 환자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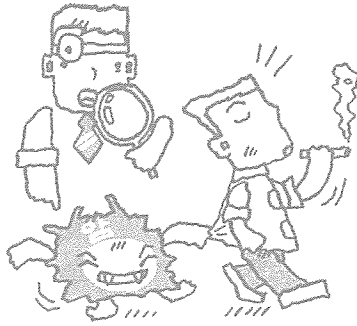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는 식욕 감퇴·구토·체중 감소 등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뿐만 아니라 간 기능 및 신장 기능의 손상,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를 떨어뜨리며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의학은 암의 발생 원인을 보는 관점부터 서양 의학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치료 또한 다른 각도에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상술한 서양 의학의 암 치료법이 수술,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등으로 암 자체를 직접 제거하고 죽이는데 치중하는 반면 한의학에서는 내적인 저항력의 증강 즉,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데 치료의 초점을 두고 있다.

동의보감에서는 “인체의 정기를 기르면 종양이 저절로 제거된다(養正則積自除양정즉적자제)”라 하여 종양은 인체의 정기가 약해서 발생한 것으로 그 치료에 있어서 정기를 복돋우는데 비중을 두어야지 만일 직접 종양을 공격하는 치료에 치중할 경우 그 병세가 더 심해질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이처럼 정기를 배양하여 인체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암 치료법을 ‘부정법(扶正法)’이라고 한다. 최근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한 십전대보탕(十全大補湯)가미방, 대전대학교의 소적백출산(消積白朮散)가미방의 항암 및 암 전이·재발 억제 효과는 모두 암치료에 있어서 부정법(扶正法)의 의미를 학문적으로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는 상대적으로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치료법을 ‘거사법(祛邪法)’이라고 한다. 일종의 한방 항



암 치료라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활혈화어법(活血化瘀法), 중앙 주위의 염증을 제거하며 독소를 해독시켜 몸 바깥으로 내보낸다.

동시에 세포 독성 작용을 하는 청열해독법(淸熱解毒法),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단단한 종양조직을 연화시키는 연견산결법(軟堅散結法), 체액의 산성화를 개선시키며 항암작용을 하는 화담거습법(化痰祛濕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세포독성을 통한 항 종양작용, 혈관생성억제작용 등을 통해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

임상에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허실을 판단하여 부정법(扶正法)과 거사법(祛邪法)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운용하는데 이를 ‘부정거사법(扶正祛邪法)’이라 한다.

이처럼 한방과 양방의 암에 대한 관점 및 치료법을 비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두의학의 장점을 취합하고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암이라는 난치병의 치료에 한발 더 접근하고자 함이다.

일례로 실제 임상에서 서양 의학적인 암 치료 후 종양은 줄었는데 환자의 심신이 피폐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또, 치료를 지속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일부 암에서 종양을 축소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목적으로 많이 선택되는 화학요법의 경우 종양 자체에 대

한 살해 작용이 강한 것은 인정되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 세포까지 광범위하게 손상되어 나타나는 각종 부작용과 면역 기능의 저하로 인해 재발과 전이가 급속히 진행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경우 환자의 체력이 뒷받침되어 치료의 고통과 부작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기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부정법(扶正法)을 통한 한방 치료를 병행하여 체력을 증진시키고 부작용을 감소시켜 화학요법을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후 지속적 관리를 통해 면역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암의 재발 및 전이를 억제, 감소시킬 수 있다.

서양 의학 암 치료의 부작용에 대해 한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 수술 후 저항력이 감퇴될 때는 익기보혈법(益氣補血法), 방사선 치료 후에 따르는 발열 등 열독의 부작용에는 청열해독(淸熱解毒), 양음생진(養陰生津), 양혈보기(養血補氣), 화학요법의 부작용에는 증상에 따라 양혈보기(養血補氣), 건비화위(健脾和胃), 자보건신(滋補腎腎) 등의 치료법을 활용한다.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 교실팀은 ‘가미자도환(加味紫桃丸)’과 ‘혈부축어탕(血府逐瘀湯)’의 암 전이·재발 억제 효과를 학문적으로 입증하였으며 이에따라 이를 임상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의학과 서양 의학이 공존하는 더 없이 좋은 우리 나라의 의료 환경에서 종양의치료에 있어 양방, 한방 어느 쪽이 더 우수한가라는 무의미한 논쟁보다는 한·양방결합을 통해 환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암이라는 난치병의 정복에 다가가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믿는다. ☎ (032-509-5730)